

지역 소식통

익산, 시민정보화교육 수강생 모집

익산시는 컴퓨터 기초과정과 스마트폰 과정으로 구성된 2017년도 시민정보화 교육에 참여할 수강생 각 30명씩을 2월 1일부터 선착순 모집한다.

컴퓨터·인터넷 기초 과정은 컴퓨터 켜기와 끄기, 키보드 사용법, 윈도우 기초, 인터넷 기초 등 컴퓨터와 인터넷 사용에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지식을 교육한다. 스마트폰 과정은 스마트폰 기본적인 사용법, 필수적인 앱 설치 및 사용, 스마트폰을 이용한 SNS활동 방법 등 스마트폰 사용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지식을 재미있게 전하는데 중점을 두어 스마트폰 등의 스마트 기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떨치고 정보 활용 능력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교육으로 이뤄진다.

프로그램은 3월 13일부터 4월 7일까지 4주간 교육으로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된다.

참여 희망자는 시청 교육정보과로 전화(859-5287, 5286, 5285) 접수하면 된다. /익산=장양원 기자

익산, 시설원예분야 보조사업 신청

익산시는 시설원예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오는 2월 3일까지 시설원예분야 보조 사업 신청을 받는다.

올해 추진하는 보조 사업은 시설원예 현대화, 에너지이용 효율화,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온풍난방기 지원,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등 7개 분야로 100여명의 원예농가에게 지원된다.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은 FTA 등 개방화에 대응해 원예시설의 현대화를 지원하여 원예작물의 품질개선과 안정적인 수출기반 구축하기 위해 추진된다.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은 다경보온커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겨울철 난방비 절감을 통하여 원예농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은 비가림 재배의 경우 병해충 피해가 적고 생산성이 높아 농가소득이 증대된다. 온풍난방기는 원예농가의 난방비 부담을 줄여주고 고품질의 원예농산물을 생산하는 데 도움을 준다.

신청 희망자는 읍면사무소(5개 사업) 및 지역농협(시설원예 현대화,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사업)으로 신청하면 된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보건소, 겨울방학 어린이 비만예방 프로그램 성료

군산시보건소 '내 몸애(愛) 건강 더하기 프로젝트'가 참가자들의 호응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지난달 4일부터 25일까지 운영한 이번 프로젝트는 초등학교 4학년 이하 학생들 중 신체활동이 필요한 BMI 지수 표준 이상 및 이하 학생 40명을 선발해 총 12회에 걸쳐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어린이의 운동 및 식습관, 생활습관 등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사진에 기초체력검사, 체성분검사, 혈압측정 검사 등 다양한 기본검사를 실시했다.

정현태 보건소장은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더욱 내실 있고 다양하게 개발·보급함으로써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군산=문정곤 기자

익산시보건소 1952년생 시민 대상 폐렴구균 예방접종 연중 실시

익산시보건소는 1952년생 시민들을 대상으로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연중 실시한다.

폐렴구균 예방접종은 65세 이상 연령에서 평생 1회 접종으로 폐렴구균 감염에 의한 '폐렴', '뇌수막염' 등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50~80%까지 예방할 수 있다.

접종을 원하는 동지역 시민들은 평일 오후 1시부터 4시 이전까지 익산시보건소 1층 예방접종실로, 읍면지역 시민들은 해당보건소로 문의 후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 초등학교 4곳 '신입생 없다'

도교육청 조사결과... 신시도초 야미분교, 2년 연속 신입생 한명도 없어

군산시가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2017학년도 신입생이 없는 초등학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입학식이 없는 도내 초등학교는 총 6곳으로, 이 가운데 군산지역 학교는 4곳(내홍초, 대야초, 무녀도초, 비안도초, 신시도초 야미분교)이 포함된다.

지난해 도내 입학식이 없는 학교 6곳 중 4곳(해성초 내초분교장, 대야초 광산분교장, 개야도초, 신시도초 야미도분교장)이 군산인 것과 같은 수치다. 이 중 신시도초 야미분교는 지난해 이어 2년 연속 신입생 수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입학식이 1명 뿐인 초등학교도 군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교육청이 집계한 입학 예정자가 1명인 도내 초등학교는 총 15개교로, 그 중 군산의 경우 금암초, 마봉초, 대야초 광산분교, 선유도초, 신시도초 등 5곳이 해당된다.

무주 2곳, 익산 1곳, 정읍 1곳, 김제 1곳, 진안 1곳, 임실 1곳, 고창 1곳, 부안 1곳 등 지역별 평균 1~2곳보다 웃도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신입생 수가 없거나 1명인 학교는

도심 및 농촌보다 도서지역 학교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섬이 많은 군산의 지형적 특성상 다른 곳보다 상대적으로 도서지역 학교가 많기 때문에 입학식이 없는 현상이 더욱 잦은 것으로 풀이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역적인 학령인구 감소, 도심으로의 이동, 저출산 등 다양한 요인으로 농어촌학교 학생 수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폐교 증가, 원거리 통학 같은 학생들의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군산=문정곤 기자

섬유원단 생산업체 전일니트, 익산에 입주

제3일반산단 패션단지 내 공장 신설키로

익산시에 섬유원단 생산업체인 전일니트는 1일 오후 시청 시청실에서 정현을 익산시장, 김성국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익산 제3일반산단 패션단지 내 공장신설에 관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전일니트는 섬유원단 생산업종 중 편직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지난 2004년 중국연태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고, 지난 2013년 익산제1국가산업단지내로 국내 복귀하여 4년여

동안 공장건물(구, 태창)을 임대 운영해 왔다.

그러나 공간이 협소하여 일부 편직기계를 사용할 수가 없고, 부지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타 지역으로 공장 신축 등 이전 계획을 하고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익산 패션단지에 본격 투자 결정을 하게 됐다.

전일니트는 패션단지 내에 부지 3,306㎡, 공장 1,653㎡ 규모로 15억원을 투자하고, 올 상반기 착공해 연내

완공할 예정이다.

김성국 대표는 "섬유산업이 익산에서 다시 꽃피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더불어 섬유, 의류 등 다양한 연관산업이 패션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패션단지에 전일니트가 입주하게 되어 섬유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신호탄이 되길 바란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투자 결정을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패션단지 활성화에 힘쓸 것"이라고 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2월 이달의 독립운동가에 대암 이태준 선생 6.25전쟁 호국영웅 매튜 리지웨이 美 육군대장

전북서부보훈지청(지청장 이우실)은 국가보훈처에서 2월의 독립운동가에 대암 이태준 선생과 6.25 전쟁 호국영웅에 매튜 리지웨이 美 육군대장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태준 선생은 경남 함안 출신으로 세브란스의학교를 졸업한 의사(醫師)이자 독립운동가로서 안창호 선생의 추천으로 비밀결사 신민회의 의과관체인 청년학우회에 가입하여 활동하다

체제가 낯선 105인 사건으로 체포위기에 처하자 중국을 거쳐 몽골로 망명하였다.

몽골에 비밀군관학교 설립 계획을 갖고 있던 김구식의 권유로 1914년 몽골 고원(庫倫, 오늘날 울란바토르)에 정착하여 동의의국(同盟義國)이라는 병원을 개원하였다.

선생은 근대적 의술로 몽골인의 70~80%가 감염된 전염병을 치료하였고, 몽골의 마지막 황제인 보그드(Bogd) 칸의 어가가 되었으며 당시 외국인에게 수여된 최고 등

급의 몽골 국가훈장을 받았다.

몽골에서 의술을 베풀며 투터운 신앙을 얻은 선생은 몽골과 중국을 오가는 애국지사에게 숙식과 교통 등 온갖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신한청년당 대표로 파리강화회의에 파견된 김구식에게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하였다.

또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총리 이동휘가 확보한 코민테른 자금 40만 루블의 운송에 깊이 관여하였고, 폭탄제조기술자인 헝가리인 마자르를 의열단에 소개하여 의열 투쟁을 도왔다. 그러나 몽골을 점령한 러시아 백위파에 의해 38세의 젊은 나이에 일생을 마감하였다.

정부는 선생의 공을 기려 190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6.25전쟁영웅 리지웨이는 1950년 12월 미 제8군사령관에 부임하였다.

당시 유엔군은 11월 25일 시작된 중공군의 제2차 공세에 밀려 38도선으로 철수한 상태로, 패배의식이 만연해 있었다.

당시 해리 트루먼 미국 대통령도 대한민국을 포기하라는 지시를 내렸지만, 오히려 이때 리지웨이의 강력한 리더십과 불굴의 투쟁이 더욱 빛을 발하며 전세를 역전 시킨다.

1951년 1월 25일부터 작전개념을 수색정찰에서 지역 확보로 바꾸고 여러 병종이 거대한 팀워크를 이루며 조직적으로 반격하는 언더블트 작전을 전개하였던 것이다.

그가 직접 전투현장을 지휘하며 숭수수병했던 이 작전에서 유엔군은 중공군 인체전술의 한계점이 무엇인지 파악하였고, 땅에 떨어진 사기와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었다.

맥이더의 뒤를 이어 유엔군 사령관에 임명된 리지웨이는 6.25전쟁을 명예롭게 끝내기 위한 정전협상을 이끌었다.

1993년 98세의 나이로 미국 피츠버그 자택에서 영면했으며 그의 유해는 알링턴 국립묘지에 안장됐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시 드림스타트, 찾아가는 'DREAM FUND BOX' 운영

군산시 드림스타트가 지역사회와 나눔과 참여를 유도해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을 주고자 찾아가는 DREAM FUND BOX(드림펀드박스)를 운영한다.

DREAM FUND BOX는 50인 이상 근로자가 근무하는 기관·단체 등에 나눔박스를 설치해 재활용 가능한 의류, 장난감, 생활용품 등 다양한 물품을 후원하는 사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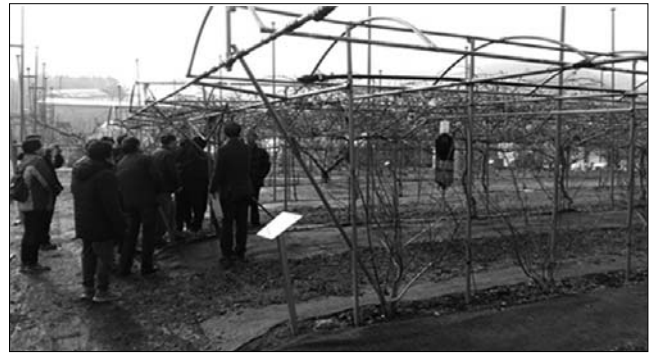
군산시는 지난달 25일부터 시 산하 주민복지국 5개 부서에 나눔박스를 설치하고 총 46개 부서에서 순환 운영하고 있다.

후원된 물품은 드림스타트 내 물품이 필요한 가정에 직접 지원하고, 기타 물품은 아이맘's 카페의 Good Shop 매장에서 상설 판매하거나 바자회를 통해 수익금을 마련해 위기가정 아동과 가정에 지원할 예정이다.



기관·단체 외 물품후원을 통해 위기가정 지원에 동참하고 싶은 개인은 아이맘's 카페 내 Good Shop매장을 통해 연중 참여가 가능하고, DREAM

FUND BOX의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단체는 군산시 어린이행복과 드림스타트(☎454-7850)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문정곤 기자



전북농업기술원, 겨울철 다래 재배 방법 제안

전북농업기술원(원장 김학주)은 무주지역을 중심으로 재배되고 있는 다래의 수형 구성과 결실량 조절을 위해 겨울철 전정(가지치기)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전북지역의 다래 재배면적은 3ha(전국 37ha의 8.1% 차지)이며, 열매, 잎, 줄기, 뿌리에 이르기까지 영양 및 기능성이 풍부하고 생과 수액, 한약재, 화훼 소재 등 용도가 다양한 토종과수이다.

다래는 덩굴성 식물로 생장이 왕성하여 주간부를 중심으로 굵은 가지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열매가 달릴 수 있는 가지의 적정한 조절이 필요하며, 다래 가지치기 하는 겨울과 여름 1년에 두 번 실시하는데, 겨울 전정은 결과모지를 갱신하고 수체생육을 건실하게 하기 위해 낙엽 전 뒤 2주후부터 시작하여 늦어도 수액이 이동하기 전인 2월 상순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가지치기 방법은 결과모지가 기부지름이 1~1.5cm, 길이는 150~250cm가 적당하며, 한그루에 40개 정도로 대개 25~30cm 간격으로 1개씩 골고루 배치하고, 중간정도의 세력을 가진 것으로 기부에서 5~7마디의 눈을 남기고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전북농업기술원 최창학 연구관은 다래를 동부권의 새로운 소득과수로 육성하기 위해 국내에서 개발된 10품종을 도입하여 전북지역에 적합한 품종을 선발하고 있으며, 농가에서 과실을 적기에 수확할 수 있는 수확기 관별법, 과실 상품성을 높이는 후숙 방법, 다래 새순과 과실을 활용한 가공이용성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재배농가의 소득 향상을 위해 앞으로 관수개시, 수정, 적과 등의 주요 재배기술을 주기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시, 2016년도 시세 결산액 1752억원 달성 최고액 기록

군산시가 2016년도 시 세입 결산액과 1752억원을 달성해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15년 1582억원 보다 170억원(10.7%)이 증가한 것이며, 민선 4기 첫 해인 2006년(779억원)과 비교해 보면 무려 973억원(124.9%)이 오른 것이다.

이 같은 증가추세로 볼 때 2019년에는 시 세입 예산액 2천억원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6년도 세수 증가요인은 5년경과 산업단지 감면분의 과세전환과 미장택시, 페이퍼코리아, 신역세권 등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대단지 아파트 단지, 원룸, 주상복합건물 등 신?증축 증가 영향이 컸다.

또 고군산연결도로 개통 및 새만금

지역 개발심리에 따른 토지 및 주택 가격 상승 등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과세자료의 정확화 조사·정비로 세원누락 방지, 산업단지 공장 신·증축 및 대형건축물, 유흥주점, 골프장 등 사치성 중과재산에 대한 일제조사, 탐투·은닉세원 발굴을 위한 세원관리 강화 등 철저한 세입관리로 자주재원을 확충한 결과로 분석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 세입 확충을 위해 비과세 감면 대상 및 세수누락 취약분야 상시조사, 탐투·은닉세원 발굴 등에 모든 세정역량을 집중해 가용 자주재원 적기 조달과 재정 건전성 확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군산=문정곤 기자

군산해경, 해양사고 대응·관리팀 구성 운영

군산해경이 심입 서장 취임 후 해양사고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1일 군산해양경비안전서(서장 채광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해양사고에 대한 대책마련과 근본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대응·관리팀(TF팀)을 구성하고 연중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월부터 본격적으로 TF팀이 가동되면 사고 예방과 구조 골든타임을 줄이고 효율적인 경비활동과 낚시어선 등 민·관 구조협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해경은 TF팀이 해양사고를 분

석하고 해역별·유형별 대응전략을 마련하면 추진 업무 중 최우선해 모든 역량을 투입할 방침이다.

해경 따르면 최근 5년간 급격히 늘고 있는 수상레저 활동과 낚시어선 증가로 인해 연평균 60여건에 불과하던 해양사고가 15년 116건을 넘어 지난해 157건까지 크게 증가했다.

2월부터 본격적으로 TF팀이 가동되면 사고 예방과 구조 골든타임을 줄이고 효율적인 경비활동과 낚시어선 등 민·관 구조협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문정곤 기자

익산, 문체부 대한민국 테마여행지 육성사업 선정

익산 백제역사유적지구 왕궁리 유적이 제주 협재해변, 합천 다리는 등과 함께 CNN이 선정한 '한국의 아름다운 여행지'로 뽑힌 바 있어 화제가 됐었던 가운데, 올해는 익산시, 대전광역시, 공주시, 부여군의 백제문화 권역이 문체부가 선정하는 '대한민국 테마여행지 10선 육성사업'에 선정됐다.

문체부 핵심 공모사업에 익산시가 선정됨으로써 지역관광 활성화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테마 여행 10선'은 서울과 제주에 집중돼 있는 국내 관광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 5개년 계획으

로 경쟁력 있는 전국 10개 권역을 대표 테마여행지로 선정, 대한민국 핵심 관광지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매년 10개 대표 권역에 총 240억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이에 따라 익산시는 올해 한해 익산의 대표 명소인 백제역사유적지구, 보석박물관 뿐 아니라 익산의 관문인 익산역 주변 구도심·전통시장 등 지원을 활용한 관광활성화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지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진정한 지역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익산=장양원 기자